

# 해외건설 수주 '반토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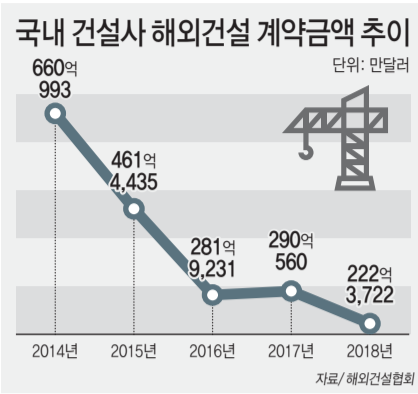
(상위 10개사)

UAE  
쿠웨이트  
알제리

사우디  
이라크

# 중동 5국 공략해야

수주액 급감·미수금 증가세 이어져 '수주 턱발' 중동서도 발주량 감소 하반기부터 대형 프로젝트 잇따라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가 꺾였다.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고, 저유가 여파로 주력 시장인 중동에서 발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중동·북아프리카 플랜트 발주시장이 개선돼 수주 여건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4년 새 해외수주 실적 '뚝'

4일 해외건설협회 수주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협회 회원사의 해외 신규 수주액은 222억3722만 달러로 집계됐다. 4년 전 연간 수주액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건설업체의 연간 해외 수주액은 2014년 660억993만 달러에서 2015년 461억4435만 달러, 2016년 281억9231만 달러로 매년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290억560

만 달러로 소폭 증가했으나, 올해는 4분기인 현시점에도 지난해 수주액의 77%가량에 그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기 힘들어 보인다.

10대 건설사만 보면 해외 수주 감소세가 더 두드러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건설 수주 실적 및 미수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사 해외건설 수주액은 290억 달러로 2014년(660억 달러) 대비 56% 급감했다. 해외

건설 진출업체 수도 2014년 459개에서 지난해 421개로 8% 가량 감소했다.

반면 미수금은 매년 늘어나 2012년 5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2억50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저유가에 따른 발주처 예산 부족과 함께 발주국 내 전쟁 때문이다.

그간 전통적 수주 턱발로 손꼽히던 중동에서도 신규 수주가 메말랐다.

올해 해외건설협회 회원사의 연간 해외수주금액에서 중동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33.8%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엔 이 비율이 47.5%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다 2015년 37.9%, 2016년 35.8%로 줄다가 2017년 국제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50.3%까지 급등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측은 "중동 수주액 증가는 2016년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전체적인 계약금액 상승을 견인하던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올해는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 ◆"중동·북아프리카 플랜트 시장 기대"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건설사

의 해외수주에도 봄바람이 불 전망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대형프로젝트 발주 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KB증권의 '건설-해외수주 한눈에: 주목해야 할 5개국' 보고서는 "MENA지역(중동 및 북아프리카) 플랜트 발주시장이 2018년 하반기부터 추세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국가는 ▲대규모 정유설비 투자 집행 ▲후속 조치로서 다운스트림 분야 다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하방경직성을 확보한 유가로 인한 대형프로젝트 발주 가능성 등의 공통점이 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2018년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시작된 발주 사이클은 중기적으로 쿠웨이트와 사우디로 확대될 전망이며, 알제리와 이라크 시장 역시 발주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UAE의 경우 8년 만에 강력한 투자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다.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ADNOC(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은

오는 2025년까지 450억 달러를 투자해 아부다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화학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Gasoline&Aromatics(35억달러) 기술인찰을 진행 중이다.

쿠웨이트도 내년부터 대형 프로젝트 발주에 나선다. 2014~2015년 Clean Fuel Project(120억 달러)와 New Refinery Project(150억 달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New Refinery와 통합 운영될 Al-Zour Petrochemical Complex(80억 달러)의 인찰이 내년 중 진행된다.

사우디도 Yanbu 지역에 정유와 석유화학 통합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200억 달러, Jubail 지역에 Mixed Feed Cracker를 건설하기 위해 5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알제리와 이라크의 발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알제리는 Sonatrach를 중심으로 정유설비와 석유화학 설비 발주를 진행 중이다. 이라크는 생산량 증대를 위한 IOC의 투자가 재개되는 상황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ooull.co.kr

# 서울 집값 부담에 수도권 새 아파트 관심집중

서울 아파트값 평균 8억원 돌파  
접근성 좋은 경기권 분양 러시



'별내자이엘라' 조감도. /자이S&D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8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경기도 등 인접 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서울보다 가격 부담이 적지만 교통 편의성 등으로 서울 생활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가격은 8억2079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8월) 8억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2000만원 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6년 8월, 6억원에 진입한 이후 7억원(2017년 12월)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7억에서 8억까지 걸린 기간은 단 8개월에 불과하다.

이처럼 서울 집값이 빠르게 급등하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서울과 접해있는 경기도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9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가격은 ▲하남시 5억 8013만원 ▲광명시 4억 8478만원 ▲안양시 4억 5053만원 ▲구리시 4억 1915만원 ▲부천시 3억 3706만원 ▲고양시 3억 5765만원 ▲김포시 3

억 3723만원 등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값의 절반 수준이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한 주거단지의 인기도 높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선보인 주거용 오피스텔 '삼송 더샵'은 총 318실 모집에 3352건이 접수돼 평균 10.5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대림산업이 지난 4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선보인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아파트도 237가구에 4230명이 청약해 평균 17.13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이 1순위 당해에서 마감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규제가 잇달아 발

표됐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꾸준히 치솟자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서울로 출퇴근이 쉽고 생활 인프라까지 이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12월에도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기도 지역에 분양이 이어진다.

자이S&D는 10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도시지원시설 16블록에 '별내자이엘라'를 분양한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오는 2021년 개통하는 지하철 4호선 연장 북부별내역(가칭)이 있어 서울역까지 약 4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GS건설도 이달 경기도 의정부시 내 용현동 241번지 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탑석센트럴자이'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7호선 연장 탑석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KCC건설도 같은 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대에서 '안양 KCC스위첸' 오피스텔을 선보인다.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경부선 전철 1호선 명학역이 있고 차량으로 10분 거리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진출할 수 있는 산본IC 등이 있다.

/채신화 기자

# 9월 외환보유액 4030억달러 '사상 최대'

외평채 발행·자산운용 수익 증가 탓

지난 9월 외환보유액이 다시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9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 규모는 4030억달러로 전월 말(4011억3000만달러)보다 18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 7월(4024억5000만 달러)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외환보유액이 다시 증가한 배경은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과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외평채는 환율 급변동 등 외환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세부항목별로는 국채와 정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등 유가증권이 3756억3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27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 중앙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에 있는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171억5000만달러로 9억달러 감소했다. 국제통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위변조대응센터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는 모습. /연철뉴스

화기금(IMF) SDR(특별인출권)도 35억1000만달러로 전월(35억3000만달러)에 비해 소폭 줄었다.

IMF포지션과 금은 각각 19억1000만 달러 47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한편 8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4011억달러) 규모는 인도(4001억달러)를 제치고 세계 8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1위는 중국(3조1097억달러)이었고 일본(1조2593억달러), 스위스(8001억달러) 등 순이었다.

/김희주 기자 h89@

# 수출 줄 땐 환율 영향 적다

우리나라 수출 확장기에는 글로벌 국내총생산(GDP)과 실질실효환율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탄력적이나 수축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국면전환을 고려한 수출변화에 관한 실증연구(김세완 이화여대 교수·최문정 한은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에서 1994년 1분기~2016년 4분기 한국의 수출증가율과 세계 경제성장률, 원화의 실질 실효환율 변화율 관계를 분석했다.

공분산 분석 결과 우리나라 수출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GDP와 양(+)의 관계(장기탄력성 4.95), 실질실효환율과 음(-)의 관계(장기탄력성 0.02)를 유의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수출증가율이 확장기와 수축기 간 국면이 전환되는 패턴을 보이므로 비선형 수출증가율 결정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

됐다. 또 STAR-VECM 추정결과 수출증가율과 각 결정요인 변화율의 단기 관계는 수출증가율의 확장-수축기에 따라 비대칭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GDP증가율과 우리나라 수출증가율간의 양(+)의 관계는 수출의 확장기에는 탄력적(단기탄력성 2.2)인 데 반해 수축기에는 비탄력적(단기탄력성 0.9)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실질실효환율 변화율과 수출증가율의 관계도 확장기에는 실질실효환율의 절하가 수출을 증가(단기탄력성 -1.67)시키는 영향이 탄력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수축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수출 국면에 따라 주요 결정요인의 영향력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수출 전망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 韓가계자산, 부동산 의존도 높아... 거품 꺼지면 '위험'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시장 따라 자산 움직이는 취약한 구조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4일 은퇴리포트 37호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가계 자산 특징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금융자산 중 거주주택 전세보증금이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실물자산에서는 거주주택 외 부동산 비중이 선진 4개국 평균인 4.0%의 3.4배 수준에 달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가계 자산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는 지난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해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고령화가 가계의 자산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4개국과 한국 가계를 비교·분석했다.

우리나라 가계는 금융자산 운용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주식형 자산 투자에도 소극적인 편이다. 가계 금융자산

중 예금 및 저축성 보험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및 펀드 비중이 크게 낮다. 전체 자산 중 주식과 펀드를 합한 평균 비중은 미국의 0.5배, 호주의 0.4배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가계는 퇴직연금과 같은 은퇴자산 축적이 부족하고, 은퇴자산 구성과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은퇴자산 구성을 보면 비교대상 4개국과 달리 퇴직연금보다 생명보험과 개인연금 비중이 높고, 운용 스타일에 있어서도 안정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